

## 전북 장수군 북쪽서 규모 3.0 지진...한수원 "원전 영향 없어"

12월 23일 오전 4시34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87도, 경도 127.5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나 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으며, 모든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지진경보 설정값(0.01g) 미만으로 계측돼 지진 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빈 기자

'전북 장수군 북쪽서 규모 3.0 지진...한수원 "원전 영향 없어"'  
기사는 12월 23일에 작성된 기사이며, 현재와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강현우, 체육시간에 자책골을 넣을 뻔 해..

12월 20일 3교시 체육 시간에 하키를 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강현우는 곧바로 공을 몰고 자기 골대로 직진해서 골을 넣을 뻔 했다. 다행히 골이 막히진 않았다. 인터뷰를 한 결과로는 정말로 자기 골대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했다. 라고 밝혔다. 강현우 씨는 다음부터는 잘 확인하겠다고 사과 했다. 박성빈 기자

## 강현우, 김민정을 99%만 좋아해..

## 나머지 1%는 어디 갔나...

지난 12월 19일, 강현우와 김민정이 태권도가 끝난 직후, 김민정이 먼저 손하트를 해서 강현우도 함께 손하트를 했다고 강현우가 직접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강현우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민정을 99%만 좋아한다고 해서 또 다시 논란이 생겼다. 학생들

은 나머지 1%는 어디 갔나고 물었지만 강현우 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현우 씨는 우정보다는 사랑이라고 밝혀서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우정을 배신하고 여친(여자친구)인 김민정과 이미 약속도 잡아 더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박성빈 기자

## 크리스마스 파티 성공적으로 끝나..

지난 22일 금요일, 2주동안 준비했던 크리스마스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5학년 1반 학생들은 아침 7시 30분 쯤 학교에 와서 약 1시간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준비 끝에 선생님이 오셔서 다함께 서프라이즈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노래도 듣고 춤도 추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5교시와 6교시에도 놀았으면 좋았겠지만 영어와 음악 수행평가가 있어서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 말 파티 느낌도 나고 5학년

중에서 유일하게 5학년 1반만 파티를 해서 더욱 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주일 뒤인 12월 29일에는 선생님께서 2023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오는 날이어서, 각자 1개의 과자와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영화인 '엘리멘탈'을 보았습니다.

손유진 기자

## ABS 드라마, 다큐멘터리,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저번주 화요일(12월 26일) 오늘까지 방영되는 '막장가' 쪽이 사실상 거의 방영하지 못하면서 ABS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ABS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일 신문으로 다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BS 회장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계획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는 계획대로 진행 예정이며, 취소된 것을 예정이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담당하고 있는

작가와 PD,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은 준비가 미흡했다고 또 다시 사과했다. 다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정상적으로 방영될지 의문이다.

박성빈 기자

## 1월 2일

##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아래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 확인해보세요!



안내

학교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교 후에  
확인바랍니다.

해당 날씨 기사는 1월 1일에 작성된 1월 2일 날씨 기사입니다.

## 강풍 몰아친 제주...국내·국제선 항공편 무더기 결항

### 순간최대풍속 32.5m 기록...쓰러진 가로 등이 승용차 덮치기도

제주지역에 순간최대풍속이 최고 32.5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친 가운데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16일 제주지방 기상청과 공항기상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남·북부 중산간, 동부, 북부, 서부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 강풍경보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이날 지점별 순간최대풍속을 보면 고산 32.5m, 윗세오름 26.4m, 월정 25.7m, 제주시 21m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5분 제주공항에

국내선 결항편 가운데 원주, 군산, 광주, 여수 노선 항공편들은 해당 지역의 폭설이나 강풍 등의 이유로 결항했다. 같은 이유로 4편의 항공편은 제주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 국제선은 중국 항저우 노선 왕복 2편이 결항했다. 이날 제주공항에는 국내선 왕복 434편과 국제선 도착 11편, 출발 10편 등 총 473편이 운항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선 도착 167편과 출발 159편, 국제선 도착 10편과 출발 8편만 운항했다. 운항편 가운데 228편은 기상 상황 등으로 지연 운항했다. 강풍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며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13분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앞 도로

에서 강풍에 흔들리던 가로등이 마침 주행 중이던 승용차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보닛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신호등 5건과 현수막 1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완도, 우수영, 가파도, 마라도 등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한라산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모든 탐방로의 등반이 통제됐다. 지점별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3.5cm, 사제비동산 9.7cm, 어리목 9cm, 한라생태숲 1.5cm 등이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해안지역에는 1~3cm, 중산간에는 3~10cm, 산지에는 10~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산지 중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적설도 전망했다. 박성빈 기자

'강풍 몰아친 제주...국내·국제선 항공편 무더기 결항' 기사는 12월 16일에 작성된 기사이며, 실제 사건의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됨을 알립니다.

2024. 전교학생임원선거,  
5일에 진행돼...

안남초등학교 2024. 전교학생임원선거가 오는 1월 5일에 진행된다. 전교학생임원선거에는 부회장 16명, 회장 7명이 출마한다. 회장은 기호 1번 김지아, 기호 2번 정예림, 기호 3번 전지우, 기호 4번 손유진, 기호 5번 박진욱, 기호 6번 백종후, 기호 7번 정예준이다. 2023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5학년 1반의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7명 중에서 백종후 2표, 손유진 4표, 전지우 6표, 박진욱 4표, 미응답 1명이었다. 여론조사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없다. 전교학생임원선거 후보자 연설은 1월 5일 2교시에 이루어진다. 박성빈 기자

※ ABS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

### 강현우, 김민정 같이 등교..?

5학년 1,2반의 대표적 커플인 강현우와 김민정이 함께 등교를 해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실 커플로서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번도 커플이 탄생하지 않았던 5학년 1반에서는 특별한 일이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위해 촬영은 삼가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놔둘 예정입니다.

손유진 기자

## 강현우 ♥ 김민정, 언제까지 이어질까...

응원합니다.

손유진 기자



12월 20일, 점심시간에 김민정과 강현우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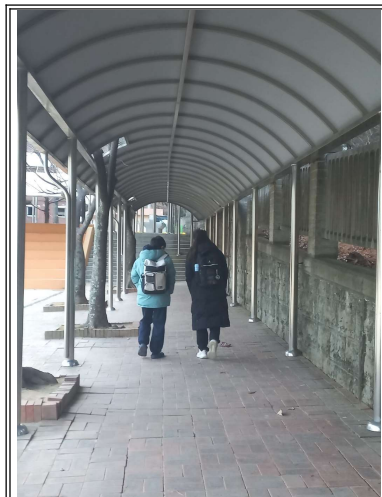
## 당일 날씨 안내 서비스 종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ABS 오일 신문 편집장 박성빈입니다. 다음 신문이 발행되는 날인 2024년 1월 15일부터 오일 신문이 발행되는 당일 날씨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오일 신문을 당일에 인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불가피하게 당일 날씨 안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오일 신문 독자분들께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날씨 안내 서비스를 제공을 종료한 만큼 더 재밌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 신문 편집장 박성빈



12월 21일, 김민정과 강현우가 함께 등교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보/손유진)